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신한금융그룹, 취약계층 겨울철 의식주 지원
 신한금융그룹이 임직원 참여 사회공헌 캠페인인 '술선수범 릴레이'의 네 번째 사업인 '취약계층 겨울철 의식주 지원'을 위한 주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가운데)과 임직원 20여명은 이날 영등포 쪽방촌을 방문해 새 이불을 전달하고, 기존 이불들을 수거해 세탁 후 재전달했다.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소상공인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
 하나금융그룹이 명동상인연합회와 함께 지역사회 소상공인을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그룹 임직원과 가족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소상공인 맞춤형 행복상자 만들기'와 '거리 환경정비 점검'으로 진행됐다. /하나금융그룹



**김지희 변호사의
 눈에 잡히는 법**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작년 12월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상 형사처벌을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위 죄로 처벌할 수 없다"(2023고단510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고 판단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다수의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그간의 판결들은 주로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제

로 이행하지 못한 업체들이 범죄 혐의를 모두 자백하거나, 일부 부인하더라도 대부분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체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긴 무리가 있었다.

그러다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2014. 10. 16. 선고 2023고단226)에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지 여부가 문제됐다. 관급공사에서 관급자재비용이 분리발주 된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사금액 산정에 관급자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 부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점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행위만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이행에 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이 문제가 된 수공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고, 그 사용 용법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위 수공구가 기계에 끼어 들어가 튀거나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예견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할 수 없었다. 이처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실제 담당 직원이 순회점검 등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담 조직을 두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담조직도 갖추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무 불이행과 중대재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된 위험성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 사건 판결로 인해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법인 바른

한국파파존스 주니어 스키기술선수권대회 후원

프리미엄 피자 브랜드 한국파파존스가 올해도 스키 꿈나무들이 참가하는 2025년 국제 주니어 스키기술선수권 대회 후원에 나섰다.

파파존스는 10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모나 용평에서 열리는 2025년 국제 주니어 스키기술선수권 대회와 제13회 전국 주니어 스키기술 선수권 대회, 제9회 전국 주니어 레이싱 스키대회에 메인 협찬사로 참여해 대회 후원금과 파파존스 피자 250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파파존스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최대 협찬사로 참여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주니어 스키 선수들의 꿈을 응원해왔다. 특히 기온이 낮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현장에 파파존스의 이동식 피자 나눔 차량인 '매직카'가 출동, 갓 구워 낸 따뜻한 피자를 제공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원선 기자

LGD, '동반성장 새해모임' 개최... 기술개발 협업 등 과제 공유

정철동 사장, 소통·협력 강조
 "협력사 덕분에 본원적 경쟁력 집중"

LG디스플레이가 새해를 맞아 협력사 대표들과 만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LG디스플레이는 경기도 파주 사업장에서 정철동 사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70여 개의 핵심 부품, 설비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5 동반성장 새해모임'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이날 행사에서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 기반 원가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 품질 경쟁력 강화, 미래 기술 개발 협업 등 동반성장을 위한 중점 과제를 공유했다.

또 올해 사업부별 전략 방향성에



(왼쪽부터) 정승렬 이데미쯔전자재료한국 대표이사, 문인식 현우산업 대표이사, 박영근 탐런토탈솔루션 대표이사, 정철동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종우 제우스 대표이사, 박진남 LG디스플레이 구매그룹장(전무)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LG디스플레이

대해 설명하는 한편, 시장 환경과 업계 트렌드 등을 전망하며 사업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기반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미래 준비를 위한 동반성장의 의지를 다졌

다. 이어 지난해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뛰어난 성과를 낸 주요 부품 및 설비 협력사에 '베스트 파트너 어워드'를 수여했다.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지난해 협력사 덕분에 사업의 본질

인 고객가치 창출과 수익성 확보,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업의 근본 경쟁력인 개발, 생산, 품질, 원가 경쟁력 강화에 집중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인사**
- ◆고용노동부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권창준 ◇과장급 전보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황효정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대변인 손영채 ◆안산시 ◇4급 승진 ▲백종선 ▲이억배 ◇5급 승진 ▲김은 ▲이재만 ▲이수애자 ▲이태주

- 부음**
- ▲송재남씨 별세, 김태균(전남도의회 의장)씨 모친상=8일 오전, 광양시 동광양장례식장 2층 제1빈소, 발인 10일 오전 9시, 장지 광양 영세공원. 061-795-7700
 - ▲유외석(89)씨 별세, 이병환(성주군수)씨 모친상=8일 오후 9시, 성주효병원장례식장 귀빈 2호실, 발인 11일 오전, 장지 성주군 선남면 오도리 선영. 054-933-1282
 - ▲심한옥씨 별세, 심영근(더헤리티지니시흥 대표)씨 부친상 = 성남중앙병원 장례식장 101호(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12), 발인 11일 8시 30분, 장지 성남시장례문화사업부. 031-799-5200
 - ▲김용년(전 목원대학교 교수)씨 별세, 김영일·김원일(백석대 교수)·김성일(청주대 교수)·김옥진씨 부친상=8일, 대전을지대학교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1일 오전 9시 30분, 장지 경북 안동 선영. 042-611-3980

현대차그룹, 美 카즈닷컴 '최고의 차 어워즈' 4개 부문 석권

싼타페 '올해의 차'... "혁신성 입증"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9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제네시스는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 평가 웹사이트 카즈닷컴의 '2025 최고의 차 어워즈'에서 4개 차종이 수상했다.

카즈닷컴은 6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발표했으며 ▲현대차 싼타페(올해의 차) ▲현대차 팰리세이드(최고의 가족용 차) ▲기아 EV9(최고의 전기차)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최고의 고급차)이 선정됐다.

카즈닷컴은 싼타페에 대해 "다재



까지 확보된 넓은 3열 공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V9은 넉넉한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인상적인 급속 충전 성능을 갖춘 3열 전기 SUV로 현대차그룹의 전동화 상품성을 증명했다.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은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에 뛰어난 성능 및 편의 기능을 갖춘 전기차로 인정받았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SUV 분야에서 현대차그룹의 리더십과 혁신성을 입증받아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최고 품질과 높은 안전성을 갖춘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파바리카노 마시고 토트넘 직관하세요"

파리바게뜨 응원 이벤트 진행

파리바게뜨는 커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홈 경기 직관 경품을 제공하는 '파바리카노 마시고 토트넘 응원 가자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벤트는 내달 7일까지 진행되며 '파바앳'이나 '해피오디'를 통해 파리바게뜨 커피를 구매하면 자동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토트넘 경기 직관 VIP석 티켓(인당 2매)과 5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이 포함된 '토트넘 경기 직관 패키지' 등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